

저축銀중앙회장 연임 유력... 영업 정상화·양극화 해소 과제

상대 후보 정진수, 자진 사퇴로 오화경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 올해 건전성·영업 정상화 시급 예보료율·지역 양극화 숙제도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임기 2기 과제에 눈길이 쏠린다. 올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와 M&A(인수합병) 활성화가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최근 오화경 현 회장을 제20대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에 단독으로 추천했다. 최종 투표는 오는 31일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되는 정기총회에서 이뤄진다.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대표가 1표씩 행사하며 투표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당초 이번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정진수 전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면서다. 그러나 지난 24일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오 회장이 단독 후보로 올라섰다. 업계에서는 오 회장이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오 회장은 19대 회장 재임때 기존 연봉의 50%만 수령했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저축은행중앙회

다. 나머지 임금은 금융당국과 소통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비로 활용했다. 민간 출신 중앙회장인 만큼 당국과 연결 고리가 약하다는 점을 극복해 내겠다는 의지였다.

인수합병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낸 것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지난 2023년 비수도권 저축은행이 영업구역을 최대 4곳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규제완화도 이끌어 냈다. 이어 이달에는 수도권 저축은행의 인수합병 규제를 풀어내면서 8년여 만에 저축은행 인수합병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남은 과제는 PF경공매 활성화

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을 필두로 저축은행과 손해보험업계,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참여해 PF매각 플랫폼을 출범했다. PF는 건전성 약화의 주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판매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전망이 나오면서 당장의 매각이 손해만 남길 것이라 관측에서다. 중앙회 차원의 부실채권(NPL) 매각 유도 및 론 포트폴리오 다양화 도출 등이 요구된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올해는 건전성 확보와 영업 정상화가 주요 과제라면 남은 기간에는 저축은행권의 공통 과제인 예보료율 조정

과 지역별 양극화 해소가 꼽힌다. 예보료율이란 금융회사가 예금을 수신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보험료의 비율이다. 저축은행은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0.40%를 지불하고 있다.

지역별 양극화 해소 방안을 두근 인수합병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지방 저축은행의 의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저축은행은 의무대출 비율 한도 내에서 여신을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40%다.

지방 저축은행권에서는 권역 외 대출 비중을 늘려달라는 의견이다. 수도권에 대출 수요를 파악해 마케팅을 단행해도 지역 내 공급 비중을 채우지 못하면 권역 외 여신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침체에 접어들면서 양극화가 뚜렷하다는 게 지방저축은행의 설명이다.

한 지방저축은행 관계자는 "PF뿐 아니라 비상업용 부동산 매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타 유지비용이 확대되는 상황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라며 "악재가 겹치고 있지만 지역 내 여신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확대도 어려운 실정이다. 균형발전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카드 News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왼쪽)과 정동훈 롯데카드 전략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카드

롯데카드-서울시 관광 콘텐츠 활성화 특화상품 개발 맞춘

롯데카드가 서울시와 함께 특화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선다.

롯데카드는 서울특별시와 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서울시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홍보 마케팅 등의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보유한 관광 콘텐츠에 롯데카드의 여행 서비스 및 마케팅 노하우를 접목한다.

우리카드 병원·백·온라인쇼핑 등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우리카드는 4월부터 업종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고 30일 밝혔다.

무이자 할부를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한다. 5만원 이상 결제 시 ▲병원 ▲백화점 ▲손해보험 업종은 최대 5개월을 적용하며 온라인쇼핑 업종은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 기간 확대를 통해 고객의 자금 계획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 일본 여행객 위한 할인쿠폰·캐시백

KB국민카드가 일본 여행객을 위한 할인 쿠폰과 캐시백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

라쿠트트래블에서 일본 전 지역 숙소 결제 시 사용 가능한 20% 즉시 할인 쿠폰을 발급한다. 할인 쿠폰은 내달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투숙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내달 30일까지 KB국민 JCB 헤리티지 클래식 카드 보유 고객에게는 사용 금액의 20%를 돌려준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3만엔 이상 이용하면 된다. 3대 편의점에서 원화환산금액 누적 5000원 이상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20%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페이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정산 기자

車 보험 손해율 90% 육박... 보험료 인하에 적자 부담

대형 손보사 車보험 손해율 88.5% 내달부터 보험료 최대 1% 내려 손보업계, 적자 폭 확대 불가피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에 육박하면서 손익분기점(BEP)을 크게 웃돌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는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 인하할 예정이어서 보험사의 적자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내 주요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5%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6.5%포인트(p) 급등한 수치다. 한파와 폭설로 인한 고장과 사고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이달부터 다음달에 걸쳐 보

험료가 인하되면 손보사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손해율이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으로 지출되는 비율이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인 80%를 초과하면 보험사는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현대해상이 93.2%로 가장 높았다. DB손해보험 88.5%, 삼성화재 87.3%, KB손보 85.1% 순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손해율 상승은 한파, 폭설로 인한 사고 증가의 영향이 크다"며 "3~4월 보험료 인하와 봄철 날들이객 증가, 시간당 정비공임 상승 등으로 향후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절적 요인 외에 보험사기 증가도 손해율 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부정수

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4년 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5704억원에 달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1조1502억원의 약 49.6%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5476억원 대비 4.2% 늘어난 규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증가할수록 결국 전체적인 손해율이 상승한다"며 "이는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상황 악화에도 자동차보험료는 오히려 인하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 인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손보사들의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손해율이 90% 가까이 치솟은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낮추면 손보사로서는 추가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이미 손보사들은 지난해 차보험손익에서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DB손해보험은 2023년 4분기 488억원 흑자를 냈지만 2024년 4분기에는 90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삼성화재는 같은 기간 540억원 적자에서 680억원 적자로, 현대해상은 60억원 적자에서 760억원 적자로 각각 적자 폭이 확대됐다. KB손해보험도 24억원 적자에서 240억원 적자로 손실 규모가 10배 늘어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손해율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데다 적자 폭이 커진 상태에서 보험료까지 인하되면 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삼성물산, 1조 규모 신반포 4차 수주

신규 단지명 '래미안 헤리본 반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1조원 규모의 신반포 4차 아파트 재건축을 수주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은 전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신반포4차 재건축은 서초구 잠원동 70일대 9만2922㎡ 부지에 지하3층~지

상 48층 규모의 총 7개동, 182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1조310억원 규모다.

단지는 지하철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도보 100m 이내로 인접해 있다. 반원초·경원중이 인접해 있고, 청담고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신세계 백화점·뉴코아·서울성모병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춰 반포 일대에서도 핵심 입지로 손꼽힌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



래미안 헤리본 반포 조감도 전경.

/삼성물산

안 헤리본 반포'를 제안했다. 문화유산(Heritage)과 강(River), 숫자 7(Seven)의 결합이다.

삼성물산은 한강변에 인접한 입지적 강점을 살린 혁신 설계를 통해 총 1320

세대를 한강뷰로 제안해 모든 조합원이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제안했다. 조합이 당초 계획한 한강조망 가능 671세대보다 약 2배 많은 수치다.

/안상미 기자 smahn1@